

#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 연구\*

- 가면극 자료를 중심으로 -

오 판 진\*\*

## 〈차 례〉

- I. 서론
- II. 비판적 사고의 개념 및 유형
- III.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
- IV. 결론

## I. 서론

국어교육에서 비판적 사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국어교육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어교육계에 선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현대의 환경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도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sup>1)</sup>는 주장이 있었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 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sup>2)</sup> 함양을 국어과의 성격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21차 학술대회(2002. 9. 14)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신 문영진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전주교육대학교 강사, (panjin87@hanmail.net)

1) 김대행,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p.7.

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국어교육계에서 비판적 사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교육을 실시하지는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 순서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교육에서 가르칠 교육 내용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자료로는 다른 것들도 가능하겠지만 그 가운데 활용의 범위가 넓은 것이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는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 과정이나 결과를 살필 수 있는 언어활동의 내용들이 매우 풍부하고, 특히 가면극에는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질들이 풍부하여 이를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가면극 채록본을 자료로 삼아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비판적 사고의 개념 및 유형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핵심 개념을 정확히 정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의 자질들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도록 하겠다. 먼저 비판적 사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비판적 사고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판'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오해가 있다. 첫째 '무조건적인 반대'나 '비난', 또는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현실이 이러한 이유는 비판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면서 뜻이 전혀 다른 비난과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사전<sup>3)</sup>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2)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p.28.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이란 의미이고,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란 뜻으로 의미가 서로 다르다. 두 번째는 비판이 사고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상대주의'적인 사고로 오해되는 경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판이라는 용어에 '인간 삶에 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사고 작용'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비판의 기준을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주의적인 기준이 아닌 보편적으로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하버마스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학파에서도 비판의 개념을 논의할 때 상대주의를 지양하면서 인간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4)</sup>

국어교육 연구자들이나 그 밖의 여러 학자들이 비판에 대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적 풀이로 볼 때 비판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지적함"<sup>5)</sup>이라는 뜻이며, 웹스터 사전(1981)에는 '비판적'이란 용어가 "신중한 판단이나 현명한 평가를 포함하는, 또는 신중한 판단이나 현명하게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쓰여있다. 사전에 있는 비판의 뜻은 비판적 사고의 결과에 해당하는 판단이나 평가를 중심으로 풀이되어 있다. 아울러 비판에 대해 논의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에니스(1962)는 비판을 "진술(주장)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성일제(1988)는 비판을 "그 성격상 평가적이며 건전한 회의주의로서 정확성, 타당성,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주장, 신념, 정보의 출처를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근거해 비판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

3) 편집부,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1999.

4)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은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지식의 정당성은 실천에서 보장받는 것인데, 인류 역사상 근본적 실천이란 오로지 모든 사람의 <해방>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제한다. 인간 해방 이데올로기에 뿌리박은 지식만이 절대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으로써 상대주의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2001. p.130-132. 재인용.

5)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판은 첫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나 근거는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회의적인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비판은 이를 제기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삶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 즉 유보하는 자세를 포함하여 회의하는 태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판을 '회의하는 태도로 준거를 통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제 '비판적 사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총론 수준에서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9)<sup>6)</sup>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평가·분류하는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분석, 평가, 분류에 필요한 준거에 대한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이삼형 외(2000)<sup>7)</sup>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텍스트의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후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를 판단하는 준거로 정당성, 적절성, 가치, 우열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국어교육을 중심에 두고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개념을 논의한 연구로 김명숙 외(2001)<sup>8)</sup>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일반의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검사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비판적 사고를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텍스트(진술 등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대하여 그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7)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2001.

8) 김명숙 외, 『사고력 검사 개발 연구(1) -비판적 사고력 검사 예비 문항 개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평가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어교육계와 교육계에서 진행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비판적 사고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판적 사고의 주체와 대상 및 대상을 평가하는 준거가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장이나 신념, 문제와 같은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근거와 준거(타당성, 신뢰성, 정확성, 가치 등)를 들어 반론, 해석, 추론, 논증, 평가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2. 비판적 사고의 유형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비판적 사고의 하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한 다음 비판적 사고교육의 틀로 삼고자 한다.

허경철 외(1991)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기능과 성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의 기능에는 ①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②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 사용 ③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보원 선택 ④ 한 문제의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 ⑤ 편견 탐지 ⑥ 숨겨진 의미, 가정 확인 ⑦ 적합한 평가 준거 사용이 있으며, 비판적 사고의 성향에는 ① 건전한 회의성 ② 지적 정직 ③ 객관성 ④ 체계성 ⑤ 유보성을 들고 있다.

장미옥(2001)은 비판적 사고의 기능을 단계별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에 대한 이해이며, ① 논쟁점과 결론은 무엇인가? ② 이유는 무엇인가? ③ 애매모호한 단어나 문장은 없는가? ④ 전제는 무엇인가? 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여과이며 ① 추리에서 오류는 있는가? ② 증거는 적절한가? ③ 대항(반박)할 수 있는 이유는 있는가? ④ 제시된 통계가 믿을만한가? ⑤ 중요한 정보가 생략되지 않았는가? ⑥ 어떤 합리적인 결론이 전개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앞의 기능들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Ennis(1962)<sup>9)</sup>과 Devine(1981)<sup>10)</sup>이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Ennis는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①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② 진술에 애매모호함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 ③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 ④ 결론이 필연적으로 뒤 따르는지 판단하는 것 ⑤ 진술이 충분히 명백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 ⑥ 진술이 실제로 어떤 원칙을 적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 ⑦ 관찰적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⑧ 귀납적 결론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 ⑨ 어떤 문제가 판명되었는지 판단하는 것 ⑩ 어떤 것이 가설인지 판단하는 것 ⑪ 어떤 정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 ⑫ 권위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세분하였고, Devine은 ① 목적을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것 ② 적절한-부적절한 정보를 구분하는 것 ③ 정보의 출처를 평가하는 것 ④ 견해의 차이를 주목하는 것 ⑤ 편견이나 함축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것 ⑥ 언어가 가지는 정서적 뉘앙스를 인식하는 것 ⑦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⑧ 추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비판적 사고를 교육할 때 그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을 구안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위에 인용한 비판적 사고의 기능이나 단계, 과정을 살펴보면 공통된 유형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추출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비판적 사고의 하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는 첫째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를 들 수 있다. 둘째 근거의 타당성 확인하기, 셋째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기, 넷째 반론하기, 다섯째 숨겨진 의미 파악하기를 들 수 있다.

9) Ennis, R. H. *A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1), 81-111. 1962.

10) Devine, T. G. *Teaching study skills*. Boston, MA: Allyn & Bacon, 1981.

### Ⅲ.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비판적 사고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에 따라 비판적 사고교육의 지향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면극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대사에서 비판적 사고의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비판적 사고 과정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가면극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일상 생활 및 그 속에서의 언어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연하게 들어 난다. 이 장에서는 가면극 자료에서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도록 하겠다.

#### 1.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의 하위 유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가면극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신장수(앞부분 생략) 야아, 장 자알 섰다. 장이 하 좋다기로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왔더니, 과연 허언(虛言)이 아니로구나. 좌우로 살펴보니 인물병풍(人物屏風) 둘러쳤으니 태평장(太平場)인데, 태평장이거나 무엇이거나 속담에 이른 말이 씬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라고 하였으니 장수가 되어서는 물건이나 팔아보자. 자아, 물건은 무슨 물건, 먹기 좋구 구수한 군밤을 팔아보자. (또는 그러면 이불 속에서 시어머니 물래 먹는 군밤부터 팔아보자.) (노랫조로) 군밤을 사려 삶은 밤을 사려 후추 양념에 밤엿을 사려 하하하 — 자아, 사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그러면 물건을 비껴어 신을 팔아보자. (노랫조로) 세코짚식이, 육날 메투리, 고운 아가씨의 꽃신을 사려. 이것도 사자는 사람이 없으니 이 장은 사는 장이 아니로구나. 몹쓸 장에 왔구나. 다시 발을 돌려 풍년장(豐年場)으로 가보자. (또는 그러면 다른 장으로 갈 밖에 없다) (청춘가조로) 간다 간다네에, 나돌아간다네, 풍년장으로 에이 나돌아간다네, 풍년장으로 나돌아간다네. (노장 앞쪽을 지나려 할 때에 노장이 부채로 신장수 면상을

탁 찬다)11)

위에 있는 대사를 살펴보면, 신장수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의견과 객관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처음엔 그는 군밤을 팔고 싶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이 없다. 자신의 의견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팔 물건을 바꾼다. 그래서 신장수는 신을 팔려고 한다. 이번에도 역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장으로 가게 된다. 신장수의 대사를 살펴보면, 신장수는 의견과 사실을 잘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면극에 등장하는 신장수는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하여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신장수의 말을 통해 사실과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자기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자료를 통해 신장수와 같은 장사꾼이 아니라 역할을 바꾸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학습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장사꾼의 말을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의견이나 허위)으로 잘 구분하지 못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수가 종종 있다. 이런 사실과 관련지으면 생동감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면극에 토대를 둔 마당극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마당극 '쪽빛황혼'에 나오는 장사꾼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장사꾼의 말을 분석해 보면, 사실과 의견을 교묘하게 뒤섞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전반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입추의 여지없이 딱딱 자릴 메워주신 여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는 국민건강의 전도사 장수탕 예술단, 여러 어르신들께 깊이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박! 예 -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11)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166. 봉산탈춤 제4과장 노장춤 (제2경) 신장수춤

치신 분들은 오래오래 사시고 안치신 분들은 제명대로만 사서. (다시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네? 저기 저 어르신 오래 사시라고 하니까 (흥내며) '오래 살아 뒤틀하, 얼른 죽으야지' 거짓말 마세요. 장사꾼이 이문 안 남고 판단 말엔 돼지가 웃고, 노인네들 어서 죽고 싶단 말엔 개가 웃어요. (생략) 여러분 내가 약장사처럼 보입니까? 내가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말이 약장사란 말이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전국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는 나는 약장사가 아니라 국민건강 전도사여! (생략)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장수탕,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지만 홍보원칙상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이 자리에선 딱 열 분만 추천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들 입장하실 때 나눠드린 표를 확인하세요. 당첨되신 분 불러드립니다. 행운에 당첨자, 당첨되셨습니다. 혹시 당첨되지 않으신 분 중에 나는 장수탕이 꼭 필요하다. 나는 장수탕 없인 하루도 못산다는 어르신들 계시면 선착순으로 몇 명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받고 장수탕 공짜로 드립니다.12)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장수에 대해 강조하는 말을 하면서 팔고자 하는 물건을 꺼내 놓는다. 처음에는 열 명에게만 공짜로 준다고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원하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주겠다고 말을 바꾸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소와 전화 번호는 왜 받는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노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장사꾼은 노인들을 속여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이다.

옛날부터 정류장이나 기차역,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종류의 사례는 많았고, 요즘에는 효도관광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이메일 등을 통해서 무차별적이면서도 보다 교묘하게 그 활동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사꾼의 말에 속아 물건을 구입하게 되고, 결국 낭패를 보게 된다. 장사꾼은 물건을 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장사꾼이 아니라든지, 공짜로 준 다든지, 운이 좋아 당첨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거나, 기회가 늘 있는

12) 류기형(2001), 《마당극 "썩빛황혼"》, 민족예술단 우금치.

것이 아니라든지, 소비자가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 많은 수법을 사용해 이를 감추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 판단을 내리는 일에 점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2. 근거의 타당성 확인하기

어떤 주장이나 신념의 근거가 타당한지를 살피는 것은 비판적 사고 과정의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어진 자료를 살펴 보고 어떤 판단이나, 평가, 또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사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로 아래에 있는 신장수의 대사를 들 수 있다.

신장수 사슴이나?

원숭이 (부정)

신장수 사슴도 아니야, 그러면 토끼냐?

원숭이 (부정)

신장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러면 네 하내비냐? (원숭이를 밀어버린다. 원숭이도 같이 민다) 가만 있자, 내가 가만히 보니 사람의 입내를 내는 것을 보니까 속담에 사람의 입내를 내는 것은 원숭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입내를 잘 내니 네가 분명 원숭이로구나.

원숭이 (궁정)<sup>13)</sup>

신장수는 원숭이를 보고 그 정체를 확인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개냐? 돼지냐? 고양이냐? 노루냐? 사슴이나? 토끼냐? 라고 여러 가지로 묻지만 정체를 확인하는 데 실패한다. 실패한 이유는 원숭이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 짐승이 사람의 입내를 잘 내는 것을 근거로 하여 속담에 '사람의 입내(흉내)

---

13)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168-169. 봉산탈춤 제4과장 노장춤 (제2경) 신장수춤

를 내는 것은 원숭이라는 말이 있음을 상기하여 정체를 밝혀내게 된다. 대상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장수는 대상을 관찰해서 그 특성을 알아낸 것과 함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속담을 동원하여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는 관련된 많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수록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신장수의 다른 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장수 오, 너 신 값을 받아왔느냐? 너 신 값을 받아오라니깐 뭐 가져왔느냐? 신 값은 안 받아오고 네가 편지를 가져왔으니 무슨 편지냐? 어서 읽어보자. (편지를 펴서 본다) '신 값을 받을려면 장작전 뒷골목으로 오너라' 에이쿠, 이것 장작점을 하겠다구 했구나, 어서 도망가자. (원숭이를 잡고 급히 퇴장한다. 덩덩 덩 장구 반주 — 신장수가 나가면 타령곡으로 노장이 소무와 같이 춤을 춘다. 얼마간 추면 취발4이 등장한다.)<sup>14)</sup>

신장수는 노장에게 신을 팔았지만 신 값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원숭이를 보내서 신값을 받아오게 한다. 그런데 신 값을 받으러 간 원숭이는 신 값을 받아오지 못하고, 편지만 한 통 받아온다. 그 편지에는 '신 값을 받을려면 장작전 뒷골목으로 오너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신장수는 편지를 읽고, 급히 도망간다. 신장수가 도망을 간 이유는 원숭이가 받아온 편지를 읽고, '신 값을 받을려면 장작전 뒷골목으로 오너라'라는 내용을 '장작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신장수의 판단이 타당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신장수가 사고한 과정은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3.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기

어떤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

14)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171. 봉산탈춤 제4과장 노장춤 (제2경) 신장수춤

로 관점을 달리하여 사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신의 관점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관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한 가지 관점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관점을 달리하여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목중1 (탈판 중앙으로 걸어나와서) 아니야.

목중2 (목중1을 따라나와서) 그래애.

목중1 우리가 종이 아니야, 벗구 놀아보자.

목중2 아니야.

목중1 그래애.

목중2 벗구 놀잔 말이가?

목중1 그래, 벗구 놀자.

목중2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야.

목중1 그래애.

목중2 벗구 놀자 하였다?

목중1 그래, 벗구 놀자 하였다.

목중2 (그래도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야.

목중1 그래애.

목중2 정말 벗구 놀자 하였지?

목중1 야, 이눔아 벗구 놀잔 말이다.

목중2 (옷을 벗으려 하며) 아니야.

목중1 그래애.

목중2 (옷을 조금 벗으며) 진정 벗구 놀자 하였다?

목중1 아니 이눔아, 그래 진정 벗구 놀자.

목중2 아니야.

목중1 그래애.

목중2 (옷을 벗으며) 꼭 벗구 놀자 하였다?

목중1 하하 이눔아, 그래 벗구 놀자.

목중2 (더거리를 벗었다) 아냐야.

목중1 그래애.

목중2 (옷을 벗어 놓고 바지띠를 잡고) 벗구 놀자 놀자 하기로 자 벗었다.

목중1 야 이눔아, 벗구 놀자 하니까 의복을 훌쩍 벗었구나. (복채를 집어 중앙에 있는 복을 팽 치면서) 이거 벗구 말이다!<sup>15)</sup>

법고(法鼓)는 '부처 앞에서 치는 쇠가죽으로 만든 작은 북'을 말한다. 그런데 목중1은 법고와 음이 유사한 '벗구' 놀자고 말을 하여, 법고 놀이를 하자는 것인지? 옷을 벗고 놀자는 말을 하는 것인지? 의미의 혼란을 초래하게 만든다. 그 결과 목중2는 옷을 벗고 놀자 라고 해석하여 더거리를 훌쩍 벗게 되고, 목중2는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행동하여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목중2가 목중1에게 법고 놀이를 하자는 것인지? 옷을 벗고 놀자는 말을 하는 것인지? 물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목중2는 목중1의 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질문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야 한다.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을 때 보다 정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취발이 (앞부분 생략) (아이 소리로) 아버지, 날 데리고 이렇게 동등 타령만 할 것 없이 나도 남의 자식들과 같이 글공부를 시켜주시오. (자기 소리로) 야, 이거 좋은 말이로구나. (아이 소리로) 그러면 아버지 나를 양서로 배워주시오. (자기 소리로) 양서라니 평안도하고 황해도하고? (아이 소리로) 아이, 그것이 아니라 언문(諺文)하고 진서(眞書)하고. (자기 소리로) 오냐 그렇게 해라. 하늘 천(天) (아이 소리로) 따지(地) (자기 소리로) 아 이눔 봐라, 나는 하늘 천 하는데 이 놈은 따지 하는구나. (아이 소리로) 아버지, 나는 하늘 천 따 지로 배워주지 말고 천자(千字) 뒷풀이로 배워주시오. (자기 소리로) 거참 좋은 말이다. (뒷부분 생략)<sup>16)</sup>

15)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144-145. 봉산탈춤 제2과장 팔목중춤 (제2경) 법고놀이

이 자료를 보면 취발이가 아이 역할과 취발이 역할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취발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취발이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을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취발이 역할을 하면서 아이와 말을 주고받을 때 아이 보다는 취발이 입장이 강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 대화에서는 오히려 자기 입장인 취발이의 역할보다는 아이 역할이 이 장면을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기 입장에서 어렵짐작할 수 있는 가상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의 입장에 몰입하여 상황을 파악해 보면 보다 밀도 높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점을 달리하여 질문하기는 자기 혼자서 혼자 말하는 방법으로 변형하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4. 반론하기

반론하기는 어떤 진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논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 자료나 증거가 타당하고(타당성), 믿을 수 있고(신뢰성), 정확하고(정확성),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 진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아래에 있는 취발이의 말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취발이 (춤 추며 소무 섰던 곳에 와서 아이를 안고 아이 우는 시늉을 내면서) 응애 응애 응애 — (자기 소리로) 에게게, 이게 웬 일이나 아 동네 양반들 말씀 들어보오.

16)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178. 봉산탈춤 제2과장 팔목중춤 (제3경) 취발이춤

연만칠십(年晩七十)에 생남하였소. 우리 집에 오지도 마시오. 우리 아이 이름을 지어야겠군. 둘째라고 지을까? 아, 첫째가 있어야 둘째라고 짓지. 예라, 마당에서 났으니 마당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군. (이하 생략)<sup>17)</sup>

소무가 아들을 낳자 취발이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궁리를 한다. 둘째라고 지을까? 생각하지만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여 둘째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첫째가 있어야 둘째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둘째라고 지을 수 없고, 지으려면 첫째라고 짓는 옳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취발이는 첫째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 장소 이름을 따서 마당이라고 짓는다. 이름을 짓는 가운데 일어난 취발이의 사고 과정을 관찰해 보면, 스스로 자기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일곱째목중 내가 자세히 보고 온즉 대망이니 웅기짐이니 솟장사니 하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나오던 노장님이 분명하더라.

여덟째목중 아냐야.

목중들 그래아이.

여덟째목중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오마. <소상반죽 열두마디—>(갔다 온다)

여덟째목중 쉬이, 아냐야.

목중들 그래아이.

여덟째목중 내가 자세히 본즉, 분명히 우리 노장님이시더라.<sup>18)</sup>

목중들은 노장과 함께 탈판으로 나오다가 노장이 없는 것을 알고 노장을 찾아다니다가 노장을 발견한다. 노장을 찾긴 하였지만 목중들은 노장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면서 노장을 비판한다. 그래서 노장을 가리

17)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178. 봉산탈춤 제2과장 팔목중춤 (제3경) 취발이춤

18)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157-158. 봉산탈춤 제4과장 노장춤 (제1경) 노장춤

켜 첫째목중은 지팽이, 둘째목중은 날이 흐리다, 셋째목중은 용기짐, 넷째목중은 숲짐, 다섯째목중·여섯째목중은 대망(大蟒)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곱째, 여덟째 목중이 다른 목중들에게 반론을 제기 하면서 노장임을 주장한다.

### 5. 숨겨진 의미 파악하기

비판적 사고에서는 축자적 이해(literal interpretation)를 바탕으로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하위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일곱째목중 이거 참 야단났구나.

여덟째목중 무슨 일이 있기에 야단났단 말이나?

일곱째목중 노장스님이 유유 정정 화화(柳柳井井花花) 했더라.

여덟째목중 아아, 그 놈이 벽센 말(僻說) 한마디 하는구나. 유유 정정 화화?

유유 정정 화화야? 그거 유유 정정 화화라니? 아 알았다. 버들버들 우물우물 곳곳이 죽었다단 말이로구나.<sup>19)</sup>

일곱째목중은 노장이 죽었다는 말을 대신하여 유유 정정 화화(柳柳井井花花) 했다고 말한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어야 한다. 즉 ‘버들버들 우물우물 곳곳이’이란 말이 죽은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여덟째목중이 ‘아 알았다’라고 할 때 그의 머리 속에서 작용하는 사고 과정은 일곱째목중이 이 말에 의미를 숨기는 사고 작용의 자취를 반대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 사례로 다음과 같은 파자 놀이를 들 수 있다.

19) 이두현, 『한국가면극산』, 교문사, 1998. p.160. 봉산탈춤 제4과장 노장춤 (제1경) 노장춤

생원 (앞부분 생략)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나?

서방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薤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부르께.

서방 눈두렁에 살피 짚고 췌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것은 눈 임자가 아닌가?

서방 하하, 그것 형님 잘 맞췌습니다.<sup>20)</sup>

위에서 볼 수 있는 파자 놀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파자 놀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이다. 파자 놀이라는 이름으로 놀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가벼운 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자를 공부하여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파자 놀이가 아닌 것이다. 연희자들이 이런 엉뚱한 파자 놀이를 하는 것은 양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가면극 대사의 의미를 잘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뚝이 1 으호호 허허허 시안님이나 진사님이나 도령님이나 영을 거역치 못하여 삼간미구에 들어 척 노시안님 딜미를 쿡 집어내어 —

만양반 (말뚝이를 치며) 예끼 이놈 수상수하 남녀노소 아동주줄 많이 모였는데 그 무슨 소리나?

말뚝이 1 어찌 듣는 말씀이요. 노시안님이 아니라 노새랍니다.

만양반 (뒤를 돌아보며) 늙으면 죽어야지. 먼 귀를 먹어서 노새를 노시안님으로 들었네그려.<sup>21)</sup>

20)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194.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21) 이두현,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1998. p.234. 강령탈춤 제5과장 양반춤

강령탈춤 제5과장 양반춤에 나오는 말뚝이의 말이다. 말뚝이는 양반을 모욕하는 말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이에 대해 양반이 문제를 삼자 자신이 한 말을 교묘하게 수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말뚝이의 말들을 독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말뚝이가 한 말을 양반이 잘못 들은 것이지 실제로 말뚝이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고 것이라거나, 또 다른 한 편으로 말뚝이의 아주 단순한 말장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말뚝이가 했던 말들은 양반이 잘못들은 것도 단순한 말장난도 아니며, 양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양반은 말뚝이의 주인이며, 힘이 있는 어렵고 무거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쉽게 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처럼 말뚝이와 양반의 대화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말의 내면적 의미와 외면적 의미를 모두 아는 것은 말뚝이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IV. 결론

이상으로 비판적 사고교육에서 내용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비판적 사고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비판과 비판적 사고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울러 비판적 사고의 하위 유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의하였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장이나 신념, 문제 등에 대해 증거(타당성, 신뢰성, 정확성, 가치 등)를 들어 해석, 추론, 논증, 평가하는 사고'라고 정의하였고, 비판적 사고의 하위 유형으로는 첫째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둘째 근거의 타당성 확인하기, 셋째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기, 넷째 반론하기, 다섯째 숨겨진 의미 파악하기를 제시하였다.

국어교육 현장에서 비판적 사고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할 터인데 여기에 가면극 채록본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비판적 사고의 하위 유형들이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면극 자료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면극 채록본은 실제로 공연 상황에서 가변적인 속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등장인물들의 대사 하나 하나의 의미보다는 그 대사들에 관철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고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가면극 채록본을 비판적 사고교육에 활용한다면 국어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두현(1998), 『한국가면극선』, 교문사. 30-230면.
- 류기형(2001), 『마당극 “쪽빛황혼”』, 민족예술단 우금치.
- 김대행(1998), 「매체언어 교육론 서설」, 『국어교육』9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김대행(2000), 「언어적 사고력의 본질과 국어교육」, 『국어과 연수교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대행(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5-37면.
- 김명숙 외(2001), 『사고력 검사 개발 연구(1) -비판적 사고력 검사 예비 문항 개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영채(1998), 『사고력: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선우남(1984), 『사고와 기호』, 형설출판사.
- 성일제 외(1989), 『사고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 윤희원 외(1995),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 이삼형 외(2001),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 이상섭(2001), 『문학비평 용어사전』, 민음사.
- 장미옥(2002), 『사고와 표현』, 세종출판사.

- 최향입(1992), 「국어교육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편집부(1999),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1999.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한철우(2001), 『과정 중심 독서 지도』, 교학사, 100-108면.
- 허경철 외(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V)』, 한국교육개발원.
- 허경철 외(1993), 『사고력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Gardner, Howard, 문용린 역(2001), 『다중지능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 김영사.
- Devine, T. G. (1981). *Teaching study skills*. Boston, MA: Allyn & Bacon.
- Ennis, R. H. (1962). *A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1). 81-111.

<초록>

##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 연구

- 가면극 자료를 중심으로 -

오 판 진

국어교육에서 비판적 사고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내용보다는 방법을 강조해 온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가면극 채록본을 자료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고, 가면극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구안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교육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면극 채록본에 정리된 자료는 실제로 공연 상황에서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대사 하나 하나의 의미보다는 그 대사들에 관철되고 있는 사고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어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비판적 사고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리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의 개념은 '어떤 주장이나 신념, 문제 등에 대해 증거(타당성, 신뢰성, 정확성, 가치 등)를 들어 해석, 추론, 논증, 평가하는 사고'를 말한다. 둘째 비판적 사고교육의 하위 유형으로는 1.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2. 근거의 타당성 확인하기 3.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기 4. 반론하기 5. 숨겨진 의미 파악하기를 들 수 있다.

【핵심어】 비판적 사고교육, 가면극 채록본, 내용

<Abstract>

## **A Study on the Context in Critical Thinking Education**

- Focus on the Korean Mask Drama Texts -

**Oh, Pan-jin**

When we discuss about a critical thinking education in an korean education, there is a trend to emphasis methods more than contexts. This paper assert that a critical korean mask texts. On that research, this paper define the concepts and types of the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nd make a contexts of that. In fact, a korean mask texts were varied in every performances. So that reason, we discuss about a thinking process more than a performing words. In this respect, this paper made researches in an critical thinking education.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is paper draw some conclusion. First, The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is thinking process like a reasoning and a demonstration when we looking for an irrational part to solve a question, and presenting an evidence as a proof. Second, The Types of Critical Thinking are 1. Distinguishing between Fact and Opinion 2. Confirming a Validity of the basis 3. Questioning on a various point of view 4. A Refutation 5. Grasping a hided Meaning.

**【Key words】** Critical Thinking Education, Korean Mask Drama Texts, Context